

# 전국모의고사

제 1 회

철학 | 인문학

1. 다음 중 네 문항은 저명한 사람의 인용문이고, 어느 하나는 인터넷에 널리 퍼진 인용문이다. 만약 다섯 사람 중에서 어느 네 사람이 왼쪽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느 한 사람은 오른쪽을 가리키고 있다. 그 사람은 누구인가?

- ① 학자는 해박하지만, 사유하지 않는다. 그들의 진리는 먼지 속에서 썩고 있다.
- ② 박사 학위란 지적으로 독립적인 사람을 통제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지요.
- ③ 박사가 아니면 학자가 아닌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학문은 소수 박사들의 전유물이 되어 학자적인 귀족이 학문권력을 장악하는 폐해가 속출하고 맙니다.
- ④ 지적 자격 없이 철학을 말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철학의 무게는 떨어진다.
- ⑤ 만약 정부가 학자들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제로 생각한다면, 비판의 자유를 장려하는 편이, 자기들의 거미줄 같은 학설을 누군가 찢을 때마다 공공의 위협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정작 대중은 관심을 두지 않는 저 학계의 우스꽝스러운 독재를 지지하는 것보다, 학문과 인류를 위한 혁명한 배려에 더 부합할 것이다.

2. 다음 중 철학책 독서에서 생겨날 수도 있는 부작용이 아닌 것은?

- ① 여전히 무식하면서도 팬히 똑똑한 듯한 착각에 빠지는 부작용 생길 수 있어요.
- ② 다시는 철학책을 읽고 싶지 않은 부작용 나타날 수 있어요.
- ③ 습관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철학의 엄밀함을 운운하며 그 습관을 고칠 생각을 안하더군요.
- ④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쩐지 풍요롭게 살고 있다는 정신 승리의 유용함이 생길지도 몰라요.
- ⑤ 포용력이 늘어나고 더 친절한 마음씨가 생겨난답니다.

다음은 <순수이성비판>이라는 책에는 시간에 관한 독특한 분석이 들어있다. 문항의 O 와 X 를 선별하시오 (3~5 번)

3. 인간의 머리 바깥에 존재하는 사물 그 자체를 우리가 알 수 없다. 따라서 만약 시간이 외부에 존재한다면, 사물 자체를 알 수 없다는 같은 이유로 시간을 알 수 없다. 또한 시간이 사물에 부속된 속성이라면, 사물 자체를 모르면서 그 속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인식에는 항상 시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은 우리 머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정체는 직관의 형식임이 틀림없다. 이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시간 개념이다. (O/X)

4. 머리 안의 시간은 머리 바깥의 감각 자료가 시간 데이터를 바뀐다는 의미이지, 24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계가 머릿속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런 시계적 시간은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머릿 속 시간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들어있다는 사실만큼은 동일하다.(O/X)

5. 시간은 감각적 직관의 보편적 조건이므로, 공간과 달리 내적 감각에도 적용된다. 내적 감각인 시간이 우리 머릿속에 없다면 우리는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없다. (O/X)

6. 쇼펜하우어가 쓴 책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세계는 나의 표상이다”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다음 중 이 문구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인가?

- ① 구명진: 응. 이 세계가 내 머릿속에 있다는 말이야.
- ② 정우성: 응. 세계는 나의 모범이라는 말이네.
- ③ 우섬결: 이 고통 가득한 세계에서도 내가 존재하게 되는 인연과 기적! 우리는 이 세계에 표창장을 줘야 해.
- ④ 마하린: 에이, 이 세계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추상적인 형태를 갖는다는 뜻이야.
- ⑤ 남윤준: 이 세계는 나를 대표한다는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하잖아? “태극기는 우리 민족의 표상이다” 이 때 표상은 무엇인가를 대표한다는 의미이지.

# 전국모의고사

제 1 회

철학 | 인문학

7. 다섯 사람이 모여 각자가 철학자 니체의 생각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 중 니체를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① 구명진: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amor fati)는 우리말로 ‘운명 애’로 번역되는데, 다시 말하면 아모르 파티는 운명을 사랑한다는 뜻이야.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인생의 목표와 과정이 운명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런 운명에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기 운명을 증명하라고 말했어.
- ② 정우성: 니체는 인생을 강을 건너는 다리에 비유한 적이 있어. 당신이 건너는 인생의 다리는 당신을 제외하곤 아무도 건널 수 없는 그런 다리라는 거야. 만일 누군가의 등에 업혀 강을 건넌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인질이 되어 자기 삶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해.
- ③ 우선결: 니체는 신의 죽음을 선포했잖아? 말 자체만 따져보면, 지금까지 신이 존재했지만, 이젠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처럼 들리지? 그렇지만 신의 존재와 비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니. 니체가 말하려는 것은 자기 창조적인 초인이 되는 데 방해가 되는 전통적인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한 메시지였어.
- ④ 마하린: 니체는 삶의 의지뿐 아니라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살려는 의지는 힘을 가지려는 의지와 비슷한 의미야. 니체가 말하는 힘은 경제력이나 권력이 아니라, 일종의 자기 지배의 능력이야. 내가 나의 삶을 통제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 그게 힘이야. 우리는 그런 힘에 의지해야 해.
- ⑤ 남윤준: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단순히 허무주의자라고 규정해서는 안 돼. 초인은 허무함을 긍정하기는 해도, 삶을 부정하지는 않아. 초인은 주인된 자,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자로 볼 수 있어.

8. 다음 제시문은 철학자 칸트가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에서 말한 것이다. 이것이 옳다고 전제한 후에, 다음 다섯 명의 교수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다. 다음 중 누가 학생들에게 가장 잘못된 지식을 전하고 있는가?

제시문: 옛 사람들이 철학을 자연학, 윤리학, 논리학으로 구분했고, 이런 구분은 매우 타당하다. 그런데 내용과 형식 면에서 이런 분류를 다시 살펴볼 수 있다.

- ① 김교수: 자연학은 자연철학이라고도 하고, 이 세계에 대한 탐구입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지식이 발달한 덕분에 철학자들이 잘 탐구하지 않으나, 옛날에는 아주 달랐습니다.
- ② 이교수: 형이상학이 없네요? 하지만 자연학과 윤리학의 하위 분류에 자연 형이상학과 도덕 형이상학이 있지요.
- ③ 박교수: 논리학은 인간의 생각의 논리적 타당성을 다루는 학문으로, 인간과 세계의 논리적 관계를 통해 진리를 제시합니다.
- ④ 정교수: 윤리학은 인간의 행동에 관한 것으로 도덕 철학이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의 경험지식을 통해 무엇이 바람직한 내용을 탐구한다면 심리학이나 인간학이라고 하고, 내용이 아닌 법칙(즉 자유의 법칙)을 탐구한다면, 도덕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 ⑤ 최교수: 내용과 형식 모두를 갖고 있는 자연학과 윤리학은 그 안에서 보편적인 형식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이 있고, 또 경험적인 부분이 들어 있기는 해도, 논리학은 형식만의 철학입니다. 이때의 논리학을 일컬어 일반논리학이라고 하지요.

9. 위 8 번 문제의 논리학을 공부할 때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① 개념
- ② 판단
- ③ 명제
- ④ 추론
- ⑤ 경험

10. (2022 학년도 대입 수능 윤리와 사상 기출문제)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 전국모의고사

제 1 회

철학 | 인문학

갑: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에 따라 제시된 논증은, 세계를 인간의 자유에 예속시키고, 인간의 자유를 언어에 예속시킬 뿐이다. 그릇된 논증은 우상을 보호하는 방책에 불과하다.

을: 모든 것이 의심스럽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의심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아는 필연적으로 존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철학의 제 1 원리이다.

- ① 갑: 자연에 대한 지식은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 ② 갑: 우상 타파를 위해 채택해야 할 학문의 방법은 연역법이다.
- ③ 을: 철학의 제 1 원리로부터 지식을 추론하려 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⑤ 갑, 을: 진리 탐구를 위해 전통적인 권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11.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어느 가족의 사연이다. 가족 간에 서로 대화가 되지 않고, 대화를 하면 금세 말싸움이 되고 말아서 그냥 대화 없이 살아가는 게 상책처럼 생각된다고 하소연한다. 이에 다섯 사람의 논리 전문가가 나서서 조언을 한다. 이 다섯 전문가 중에서 한 명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그녀는 누구인가?

- ① 구명진: 인간의 생각과 지식은 단어에 담겨요. 그걸 논리학에서는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머릿속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청소’라는 단어에 대해서, 누군가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어야 하고, 먼지까지 깨끗이 없애는 의미를 ‘청소’라는 단어에 담아두지요. 그런데 누군가는 바닥에 떨어진 것을 옮려두는 게 청소이고, 또 누군가는 부모가 대신해 주는 게 청소라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또 가족 중 누군가는 청소가 중요한 개념이지만, 가족 중 다른 사람은 청소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개념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대화가 잘 안되는 경우에는, 서로 단어의 뜻을 일치시키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 ② 정우성: 맞아요. 우리는 대화를 통해 단어의 의미를 일치시키고 서로 자기 의견을 솔직히 밝히면서 논

리적으로 설득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타인보다 설득은 쉽고, 가족이기 때문에 의견을 일치시킬 필요도 있어요.

- ③ 우설결: 단어의 의미가 어째서 달라지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족이 24 시간 함께 생활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옛날 호랑이 담배 태우던 시절에는 가족 간 단어의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오늘날 아이들은 어렸을 적부터 학교라는 공간에서 사회 생활을 합니다. 가족이어도 경험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각자의 머릿속의 개념이 달라지고, 그것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개념을 사용하는 게 판단이고, 그게 생각인데, 생각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해요.
- ④ 마하린: 저는 가족 간의 설득은 상당히 무모할 수 있다고 봐요. 인간의 머릿속 논리 구조에서는 어떤 확고한 대전제가 의견을 결정해 버리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가족끼리 적대적인 대전제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대화로 해결할 수 없어요. 설득도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어 무신론 대전제, A라는 종교의 대전제, B라는 종교의 대전제를 갖고 있는 가족 구성원끼리 대화로 생각을 일치시킬 수는 없어요. 설득이 난무하는 너무 거대한 대화는 포기하시고, 사소한 잡담이나 수다, 농담을 권하고 싶네요.
- ⑤ 남윤준: 그런데 인간의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개념이 있잖아요? 대전제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의견의 충돌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이 된 개념이나 대전제가 항상 활약하는 건 아니에요. 가족 간에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협동하며 쟁겨주고 응원하는 그런 대전제와 개념이 더 많이 활약하도록 가족 분위기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마하린 님이 말씀하신 잡담이나 수다 같은 게 가족 간의 대화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2. 다음 다섯 사람이 특정 사상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 견해를 덧붙이고 있다. 이 중 앞부분과 뒷부분이 모순되거나 충돌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① 구명진: 플라톤은 <국가>에서 이상국가를 내세우고 철인정치를 말했어. 플라톤의 가르침을 선호하는 정치인이라면 독서를 권장하고 타인의 견해를 경청하겠지.

# 전국모의고사

제 1 회

철학 | 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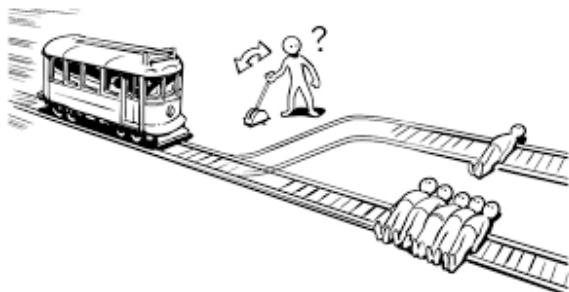
- ② 정우성: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말했다는 거야. 이 중용의 덕목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견해를 표명하기보다는 중립을 지키는 습관을 실천해야 해.
- ③ 우섬결: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라고 말했어.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기는 어려울 거야.
- ④ 마하린: 흡스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상태를 자연상태라고 말했어. 이런 자연상태를 사회적으로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내 욕망을 좀 통제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지.
- ⑤ 남윤준: 로마시대를 대표하는 스토아 철학자 에피테토스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괴로워하거나 연연하지 말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보라고 가르쳤어. 그래서 나는 요즘 열심히 체중 관리를 하고 있어.

13. (2025 학년도 대입 수능 윤리와 사상 기출문제) 다음을 주장한 중세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모든 사람은 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실천 이성에 부여된 제 1 원리는 선이라는 개념 위에 세워졌다. ‘선은 모든 것이 추구하는 것이다’가 그 원리이다. 따라서 자연법의 제 1 계명은 ‘선은 행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이며, 악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

- ① 인간의 이성적 본성에는 신의 의도로 향하는 선한 성향이 없다.
- ②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간 본성에 부여된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
- ③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 ④ 자연법에 근거한 실정법을 준수하기만 하면 참된 행복에 도달한다.
- ⑤ 인간법이 자연법에 위배되어도 그러한 법은 영원법에 부합할 수 있다.

14. 아래 그림은 트롤리 딜레마(The Trolley Dilemma)라는 사고 실험을 나타낸다.



제동장치가 고장 나 정지할 수 없는 탄광 수레(trolley)가 선로를 따라 달리고 있다. 선로 앞에는 5 명이 묶여 있어 트롤리가 그냥 진행하면 이들 모두를 쳐게 된다. 그러나 당신 옆에는 선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있다. 레버를 당기면 트롤리는 다른 선로로 전환되는데, 그 선로에는 1 명에 묶여 있다. 이런 사고 실험에서 생활 속 지식인 다섯 명이 자기 견해를 표현한다. 이中最 가장 잘못된 견해로 보이는 사람은 누구인가?

- ① 구명진: 이 트롤리 사고 실험은 윤리학 실험이라고 하는데, 나는 동의하기 어려워. 모든 것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려는 건 학자들의 병이야 병. 도덕이란 선악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거야. 선 선의 기준이라거나 악악의 기준에서 선택을 강요받는다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워. 윤리학의 가르침은 이런 극단적인 딜레마에서 찾을 게 아니라 평범한 사례에서 찾아야 해. 그래야 우리가 도덕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어?
- ② 정우성: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1 명을 희생해 5 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는 해석을 들은 적이 있어. 무덤에 있는 밀이 들으면 무덤을 박차고 나올 걸? 밀 아저씨의 관점에서는 이 실험을 도덕 문제로 보지 않을 거야. 공리주의는 질적 쾌락을 말해. 동시에 고통의 저감을 말하지. 이 사고 실험에서 레버를 잡고 있는 사람의 경우 쾌락도 증가하지 않고, 고통도 감소하지 않아. 설령 이런 일이 생겼다 해도, 배고픈 소크라테스는 괴로워할 거야. 지켜보는 우리도 힘들잖아?
- ③ 우섬결: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1 명을 희생해서 5 명을 살렸더라도 도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해석을 들은 적이 있어. 이 말은 칸트의 도덕적 비난을 전제하고 있는데, 사실 칸트는 모든 걸 도덕적으로 보지 않아. 그저 도덕법의 조건을 말할 뿐이야. 인간은 모든 지식을 알 수 없어. 나는 모든 행동의 선악을 직접 알

# 전국모의고사

제 1 회

철학 | 인문학

기도 어려울 거야.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건 도덕법의 상황이 아니라, 비참함과 잔인함의 사례를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걸 뿐이야.

- ④ 마하린: 그래도 나는 이런 사고 실험을 통해, 어떤 신념 아래에서 주장되는 도덕적 판단을 경고한다는 의미는 있으리라 생각해. 그러니까 딜레마잖아?
- ⑤ 남윤준: 이 사고 실험은 우리에게 공리주의의 원리에 따라 사회를 설계해야 함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앞으로 자율주행차 설계에서의 윤리적 판단이라거나 전쟁이 생겼을 때의 윤리적 문제를 고려한다면, 트롤리 실험을 통해 우리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사회 규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

15. 칸트가 말하는 도덕법에 대해 가장 제대로 설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 ① 정언명령이 도덕법이다.
- ② 도덕법은 논리학과 무관하다.
- ③ 도덕법에는 주어가 필요하다.
- ④ 이성의 사명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다.
- ⑤ 도덕법은 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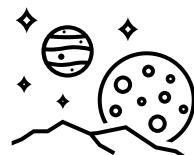
16. 다섯 사람이 모여 커피를 마시면서 직관의 의미에 대해 다룬다. 다음 중 순수이성비판에서 분석한 의미와 가장 동일한 의미로 **직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은 누구인가?

- ① 구명진: 내가 나를 **직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우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양한 기억을 갖고 있잖아? 그런 시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직관하게 되는데, 그렇다 해도 나 자신을 아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우리는 직관한 것만을 알아볼 수 있는데, 있는 그대로 직관하지는 못하니까.
- ② 정우성: 응. 김부장은 경험에 많아서 그런지 **직관**이 장난 아니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바로 해결책을 말한 다니까.
- ③ 우선결: 축구 경기를 **직관**할 때의 짜릿함을 중계 방송을 보는 것과 어떻게 비기니?
- ④ 마하린: 주인공은 마치 범인의 사정을 자기 **직관**으로 훠뚫고 있는 듯이 침묵을 지키는 장면이 압권이었어.
- ⑤ 남윤준: 창조적 천재는 풍부한 상상력과 **직관**으로 다양한 지식을 통합해 남들이 착안하지 못하는 해결책을 엮어 낸다는 말을 들었어.

17. 인간의 모든 학문은 이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지식이다. 칸트가 생각하기에 가장 오랫동안 성공적인 역사를 가진 학문은 무엇이었을까?

- ① 논리학
- ② 수학
- ③ 자연학
- ④ 이등변 삼각형
- ⑤ 형이상학

18. 칸트는 “만약 경험이 주는 모든 내용과 도움을 내께서 빼낸다면, 그때 나는 이성의 성과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말하는 칸트가 형이상학 탐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탐구 도구는 다음 그림 중에서 어느 쪽인가?



- ① 삼라만상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 ② 내 머릿속 논리학이 안내하는 형식적인 통찰



19. 칸트가 말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의 핵심 의미는 무엇인가?

- ① 감각보다는 지식을 중시해야 한다는 개념 중심의 전환.
- ② 인간 인식은 사물 자체의 성질을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전환.
- ③ 사물이 인간의 인식 형식에 맞춰져야 한다는 관점의 전환.
- ④ 자연현상은 항상 물리학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과학적 전환.
- ⑤ 종교적 확신보다는 인간 본성에 기초한 도덕을 중시하는 윤리적 전환.

# 전국모의고사

제 1 회

철학 | 인문학

20. 작품의 형태나 외형보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예술의 핵심이라고 주장하는 예술 사조가 20 세기 중반에 등장하여 현대미술의 판도를 뒤바꿨다. 전통적인 회화나 조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엇이 예술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이 현대미술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는가?

- ① 초현실주의
- ② 개념미술
- ③ 모더니즘
- ④ 야수파 혹은 인상파
- ⑤ 비트겐슈타인

예상 접수에 대한 코디정의 기대평입니다.

철학자	최고의 지식인!	생활 지식인	생활 교양인	깜짝 성장형!
90 점 이상	70~90 점	50~70 점	35~50	35 점 미만
스승님이세요!	진짜 지식인이 여기 계셨군요!	훌륭하세요! 약간의 오류 정도이 필요하지만, 인생 깁니다~	제미나이는 20~40 점, 지피티 55 점 내외라고 예상했어요.	너무 어려우셨죠? 코디정의 해설을 들으시면 머리가 엄청 시원해지시고 정신적으로 쑥쑥 성장하십니다!

이 문제는 코디정이 편집한 이소노미아의 책 <엥케이리디온>, <니힐리스트로 사는 법>, <공리주의>, <생각의 기술>, <도덕 형이상학의 기초>(근간), <순수이성비판>(근간) 등의 책에 적힌 내용에서 출제하였습니다. 모든 문제는 챕지피티 40과 재미나이의 엄밀한 검증을 거쳤는데요. AI 도 90 점 이하입니다.

해설은 8월초에 코디정의 지식 채널에서 공개합니다. 시험을 봄아 지식이 정리됩니다. 물론 입시와 자격증과는 전혀 무관하지요. 이 전국모의고사 프로젝트는 그냥 재미로 즐기자는 컨셉이니까요. 코디정의 해설, 기대해 주세요.